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 대하성과 의식성을 중심으로 -



한국P-상감센터협의회 회장 나경수
(02)579-3291 jh@exesa.or.kr

장편소설(長篇小說)은 단편소설이나 중편소설에 비해, 문양적으로 긴 소설을 가리키며, 구미에서는 소설이라면 흔히 장편소설을 말한다. 내용적으로는 스페인의 작가 세르반테스(Cervantes)의 <<돈 키호테(Don Quixote)>>와 같은 약화(英雄)소설, 프랑스 특유의 신적 분석소설, 18세기 영국풍의 사실(寫實)소설, 독일 특유의 교양소설, 기타 역사소설, 환상(幻覺)소설, 사상소설, 경향소설, 분계소설 등 몇 종류도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들의 공통적으로 통하는 장편소설로서의 특성을 고찰해 보면, 어쨌든 단편소설보다 확산적(擴散的)이고, 고전보다도 구상이 산만(散漫)하며, 그리고 또 지경보다도 사실적이다.

그 때문에 모순을 내포하고, 다층적인 구조를 가지며, 논리적 사유(思維)를 초월한다. 또 복잡다기하여 프링형(不規則)의 인간 심리나 사회적 현실을 포착하는 데 가장 적합하다. 그것이 반대로 논리

의 소설가들에게 종재적이며 실증적인 현실인식과 심오한 인간 탐구의 수단으로서 장편소설을 이용하려는 야심을 품게했다고 풀이되고 있다.

프랑스의 소설가이며 근대사실주의문학의 대표적 작가 말랑(Maurice de Laflotte : 1799-1850)의 <<인간희애>>나 졸라(Zola)의 <<루공-마카르(Rougon-Macquart)총서>>, 톨스토이(Tolstol)의 <<전쟁과 평화>>나 도스토예프스키(Dostoevskii)의 <<카라마조프의 형제>>가 대표적이다. 또, 새커리(Thackeray)나 조지 엘리엇(G. Eliot)과 디킨스(Dickens)의 장편소설, 로랑 롤랑(R. Rolland)이나 폴 로망(J. Romains)과 보야스만(T. Mann)의 대하소설(大河小說) 등을 말한다.

이 야심의 성과가 어느 것이나 19세기에서 20세기 전반에 걸친 과학적 실증주의의 전성시대와 궤를 같이 하여 출현한 것도 그 까닭으로 전히 우연



하지 않다.

프루스트(Proust)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나 조이스(J. Joyce)의 <<율리시즈(Ulysses)>>와 같이 관찰자와 관찰대상, 주관과 객관과의 소박한 분리에 의문을 던지고, 소설관의 변모를 강요하는 작품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한 현실인식의 노력이 인식 그 자체의 불가능성을 분명히 하였고, 종국에는 장편소설의 성립 기초를 붕괴시켰다. 사르트르(Sartre)의 역작 <<자유에의 길>>이 미완성으로 끝난 것은, 그 의미로 보아 매우 상징적이다. 한국의 현대장편소설의 시초는 이광수(李光洙)의 <<무정>>(1907)이라 한다.

「프랑스의 작가 프루스트(M. Proust)가 쓴 장편소설, 화자(話者)의 인생과 연애의 편력을 복잡한 시간구성으로 더듬으면서 무의지적(無意志的) 기억의 환기에 의해 의식의 심층을 조명한 작품으로, 소설의 새로운 국면을 열었음. 1913~1927년 간 행됨. 7권」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A la recherche du temps perdu)에 대한 사전적 풀이다.

프랑스 작가 프루스트(1817-1922)의 이 장편소설은 1913~1927장장 15년에 걸쳐 간행되었다. 이 소설은 <<스완의 집으로(1913)>>, <<꽃피는 낭자(娘子)들의 그늘아래서(1918)>>, <<게르망트의 방향(1920)>>, <<소돔과 고모라(1922)>>, <<여죄수(女罪囚(1923)>>, <<사라진 알베르틴(1925)>>, <<다시 만날 때(1927)>>의 무려 7편(編)16권으로 이루어진다. <<여죄수>> 이후는 작자가 죽은 후에 간행되었다.

이 작품은 구성과 내용에서 복잡하기 그지없는 작품이기 때문에, 고딕 양식(樣式)의 대성당(大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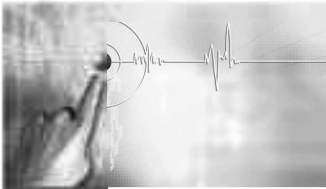
堂)에 비교되거나, 몇 개의 악장(樂章)으로 나누어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展開)를 보이는 교향악에 비유되기도 했다. 그 주제(主題)는 뛰어난 지성(知性)과 통감할 만큼 예민한 감수성(感受性)을 가진 마르세르의 절대적인 행복을 갈구하여 이를 끈질기게 추구(追求)하는 드라마라고 할 수 있다.

어린 시절 소원의 딸 지르베르트에게 향하는 한 없는 동경과 질투의 검은 그림자로 뒤덮힌 알베르틴과의 사랑으로 비롯한다. 이서서 산 루와의 우정(友情), 게르망트 공작(公爵)집안으로 상정되는 사교계에서의 성공 등, 주인공은 가능한 모든 양식과 형태로 그의 행복을 추구해나간다.

그러나 그들은 마침내 안타깝게도 <시간>이라는 가공할 파괴력 앞에 힘없이 무너져버리는 것이며, 실인생(實人生)은 결국에는 다만 <잃어버린 시간>에 지나지 않는다. 프루스트는 닥치는대로 서서히 침식되고 파괴해가는 <시간>의 괴력을 뿌리칠 수 있는 절대적인 그 무엇인가를 갈망한다.

이 작품은 1870년부터 제1차세계대전에 이르는 시기를 배경으로 하여 당시의 사회상이나 찬양되던 예술작품이 정밀하게 분석되어 묘사되고 있으므로 가히 프랑스 한 시대의 연대기(年代記: chronicle)라고도 할 수 있다.

또한 감각과 기억을 통하여 불러 일으켜지는 심상(心傷), 잠재의식의 최하층 영역에까지 내려가는 심상의 묘사는 종래의 소설이라는 고정개념에서 이탈한 혁신적 문학이었다. 이 작품 중에는 라블레(F. Rabelais)·몽테뉴(M. E. de Montaigne)·데카르트(R. Descartes)이래의 프랑스 모랄리스트(moralists)의 전통이 짙게 그리고 강하게 뿌리박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인간의 존재의식(存在意識)은 자각(自覺)됨이 없이 활동하는 의식이다. 또는 자기의 의식 안에서의 강한 금지(禁止)에 의하여 자각면(自覺面)에 나타낼 수가 없는 의식을 말한다. 일명 무의식(無意識)이라고도 하고 무의(無我)관현이라는 것은 심리학에서 명백히 의식되지 는 않으나 자각된 의식과 같은 행동을 지배하며, 자각된 의식에서 볼 수 없는 몽유(夢遊) 따위의 현상을 일으키는 현상을 말한다.

끊임없이 생성하고 변화하는 의식의 연속성. 이것이 이른바 의식의 흐름(stream of consciousness)이다. 윌리엄 제임스의 심리학 용어로, 20세기 영미 문학에서 소설의 실험적 방법으로 응용되었다. 조이스(J. Joyce)·울프(V. Woolf)·포크너(W. C. Faulkner) 등에서 볼 수 있는 내면 묘사의 수법이다.

의식(意識)이란 자신의 언동이나 상태를 분명히 깨닫는 인체의 작용을 말한다. 또한 어떤 사물에 대한 주장·감정·이론·견해 따위의 총칭이다. 불교에서는 육식(六識) 또는 환식(八識)의 하나인데, 분명히 생각하는 마음을 말한다. 즉 대상을 총괄해서 판단하고 판별하는 마음의 작용을 말한다.

소설 등에서 외면 묘사(外面描寫)란 인물의 동작 등 외면에 나타난 상태를 묘사함으로써 성격이나 심층의 심리를 나타내는 말이다. 반대로 내면 묘사는 분화 작용 등에서 인물의 심리·감정·기분 따위와 같은 내면의 심적 상태, 즉 밖으로 나타나지 않는 속마음을 묘사하는 말이다.

대하(大河)란 큰 강, 장강(長江)을 의미하는데, 중국에서 흔히 '황하(黃河)'를 이르는 말이다. 여러 대에 걸친 시대배경과 많은 인물이 등장하는 방

대한 내용을 담은 소설이다. 즉 문학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의 생애나 가족의 역사 등을 사회적이고 시대적 배경과 함께 넓은 시야로 그려는 대장편 소설의 형태가 있다. 이것이 대하소설(大河小說: roman-ileuve)인데, 1920년대 유럽 프랑스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롤랑(R. Rolland)의 <<장 크리스토프(Jean Christophe)>>, 마르탱 뒤 가르(Martin Du Gard)의 <<티보가(Thibault家)의 사람들>>과 로맹(J. Romains)의 <<천의(천의)의 사람들>> 따위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뒷 대(代)에 걸친 가족생활이나 사회생활의 흐름을 그린 장편소설이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식성, 대하성 그리고 시간성이다.

시간(時間)은 어떤 시각에서 어떤 시각과의 사이를 말한다. 철학에서는, 과거로부터 현재와 미래로 부환한 연속하는 존재 규정(規定)이다. 즉 과거·현재·미래의 부환한 연속공간(空間)이다. 심리학에서는 전후(前後)·동시(同時)·계속의 장단(長短)에 관한 의식을 말한다. 또한 불교에서는 선(心)과 색(色)이 합친 경계를 지칭한다.

시간성(時間性)은 하이데거(M. Heidegger) 및 후설(E. Husserl)의 현상학(現象學)에서, 자연적이며 통속적인 시간에 대하여 근원적 시간을 나타내는 말인데, 동시에 현상학적 구성의 전대원을 가리킨다. 그리고 시간주의(時意: temporalism)란 인식의 지점의 이진(異性)은 존재로서의 주관이나 객관이 아니고 본질(本質)이라고 보는 비판적 실재론(實在論)의 위치에 서서, 시간의 실재성이 근원적임을 주장하는 설이다. **표준**